

토종씨앗 지킴이 예비사회적기업 '씨앗토리(주)'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는 방식은 쓰레기 자체 배출량 줄이기, 업사이클링 및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서산에 위치한 예비사회적기업 '씨앗토리(주)'는 지역생태계와 환경보호를 위해 소멸하는 토종종자를 회생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다. 어느덧 다가온 연말 씨앗토리의 유일순 대표와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유대표는 서산 토박이로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면서 자연과 농촌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생겼다고 한다. 이후, 2015년 서산 토종 씨앗 지킴이 소모임을 결성하고 올해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 12기 창업 팀에 선정되면서 현재 지역환경운동의 일환으로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살리는 농업회사법인 씨앗토리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기업은 생태를 보호하는 가치를 존중할 뿐 아니라 농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씨앗토리 대표님과 직원분들 (사진제공: 씨앗토리)

'씨앗토리'는 씨앗처럼 작지만 아무지고 옹골찬 사람이라는 뜻이다. 작지만 지구를 살리는 씨앗처럼 작은 실천을 통해서 씨앗을 심어나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아 기업명을 만들었다. 기업의 캐릭터도 어린이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야채와 과일을 좋아하는 토끼의 이미지-전체 직원의 띠도 '토끼띠'라고-를 사용했다. 서산시 원도심 지역에 위치하며 아직 창업 초기 상태로 우선 10평의 상가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지 2곳을 토종씨앗 채종포를 위한 텃밭과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 중에 있다.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지역의 토종자원(씨앗)을 활용으로 토종 씨앗 키우기 키트 및 토종 씨앗 관련 생애주기 맞춤형 생태(먹을거리) 전환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역의 사라져가는 토종자원(씨앗)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토종 씨앗 키우기 키트'의 시제품을 개발했다. 또한, 토종씨앗에 대한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생애주기 맞춤형' 체험 서비스를 교육 및 환경단체, 교직원 그리고 농업인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의 다양한 분들과의 교류하고 협업하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진행(사진제공:씨앗토리)

유대표는 지역 축제에서 기업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쪽파 심기 체험'을 진행한 이후, 우연한 기회로 다시 만난 어린이 한 명이 '쪽파를 잘 키워서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지역아동센터나 어린이집에서 '토종 씨앗 키우기 키트 체험' 활동을 통해 맛있게 먹었다는 후기를 전달받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사업의 원동력이 되어 지금까지도 즐겁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종 씨앗 키우기 키트(사진제공:씨앗토리)

유대표는 씨앗이 자라는 과정이나 식탁에 오르기까지 농산물이 무엇으로,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재배되는지 그리고 이런 과정이 자연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교육활동과 연계한 체험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일반인들과의 소통하는 계기를 더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토종 씨앗 채종포 기반시설을 보충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의 사라져가는 토종 씨앗을 증식 및 확산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도 힘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형 농업의 확산과 농업인의 고령화, 서구식 식습관 등의 변화로 인해 지역에서 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보존하고 확산시키는 노력은 결국, 우리의 유전자원과 음식 문화 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토종종자를 지키는 것은 저희가 지켜야 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유대표는 기후변화와 농업인 고령화로 인해서 토종씨앗 자체수급의 어려움과 급속한 시대의 변화로 인한 온라인 등의 활용에 대한 미숙도, 창업 관련 지식 부족에 따른 문제 등으로 기업의 운영이 어려울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실속있고 질 높은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불어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준비해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사회적기업 씨앗토리는 지금 우리가 발 딛으며 살고 있는 지역에서부터 농촌과 자연의 생태계를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이어나간다. 지금으로서 작아보이는 씨앗과도 같은 움직임이 꾸준히 토종씨앗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아가 농촌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소외된 농촌사회의 건강한 경제적 자립을 돕는 싹을 틔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